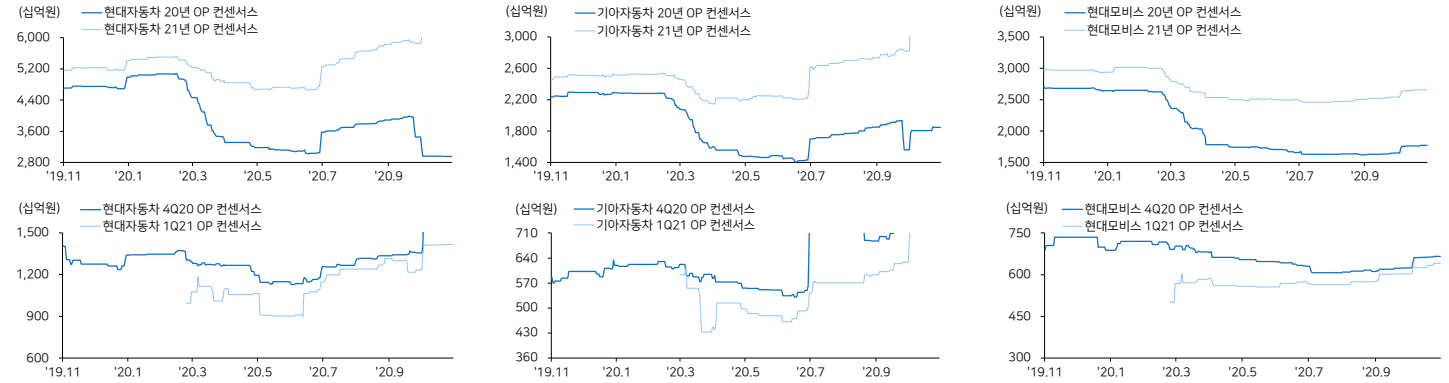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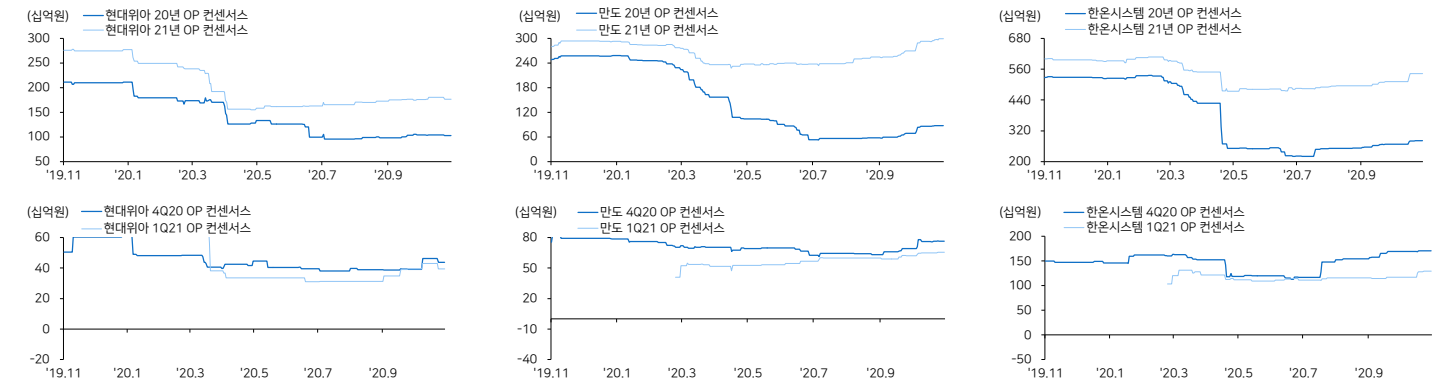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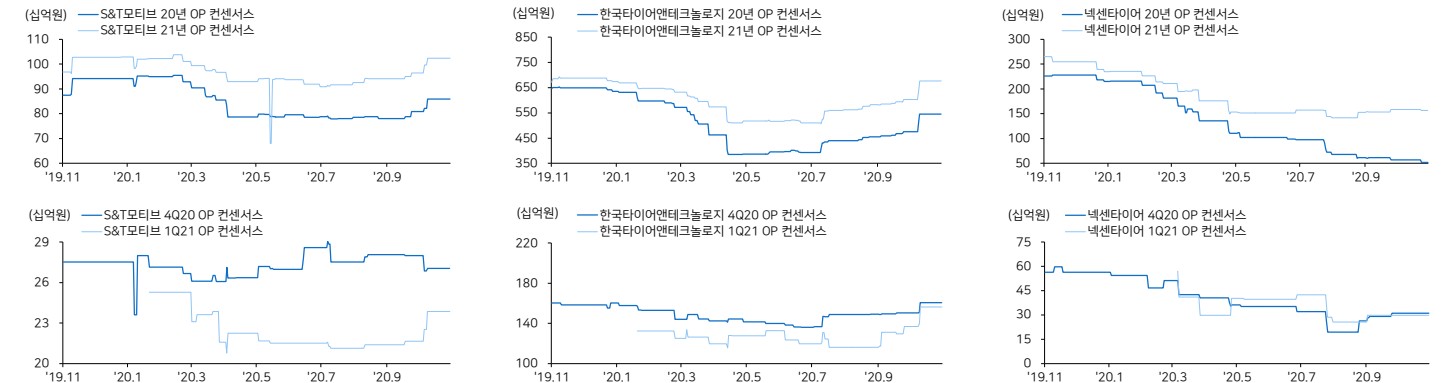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디 텃밭' 공략 현대차·LG화학, 인니에 배터리 합작사 (중양일보)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카랑 앙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을,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bit.ly/3m77UX3>

현대차, 제네시스 G70·GV70 '러시아 상륙 준비'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자동차 러시아 브랜드 제네시스가 러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신차 두 중을 선보임, 제네시스는 내년 러시아에서 신형 세단 G70과 SUV GV70 등 최소 두 개 이상 모델을 출시, G70이 내년 2분기에 출시된 후 GV70이 뒤를 이어 추가 출시될 예정.
<https://bit.ly/39ksu2L>

제네시스 G70 '브리지스톤·미쉐린' 신는다...韓 타이어 빅 3 또 '탈락' (전자신문)

현대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연말 출시를 앞둔 두 번째 SUV 'GV80' 신차용(OE) 타이어 공급사로 '브리지스톤'과 '미쉐린'을 선정, 한국·글로벌·넥센 등 국내 3사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타이어를 1종도 공급하지 못하게 됨.
<https://bit.ly/364773B>

LG전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유럽 심사단계 호평 (조선비즈)

LG전자는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와 공동 개발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가 유럽 비영리 자동차 심사단체 오토베스트(Autobest)로부터 최고 커넥티드 기술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https://bit.ly/3m78T9H>

현대차, 美서 '투싼·싼타쿠루즈' 추가 생산... 'SUV 12종 승부수' (전자신문)

현대차가 미국 현지 생산 차종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현재 7종인 SUV 라인업은 12종으로 늘리면서 SUV강화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https://bit.ly/3fDl0YU>

'화재 위험' 현대차 투싼, 지엠 볼트EV 등 6개사 16만대 리콜 조치 (매일경제)

전자제어장치 내부 합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확인된 현대기아차 투싼과 고전압배터리 완충시 역시 잠재적 화재 위험성이 발견된 지엠의 전기차 볼트 이브이(EV) 등에 대해 리콜조치가 내려짐.
<https://bit.ly/375FEHy>

한엔코, 한은시스템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추진 (덕평)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한엔코퍼니가 한은시스템(옛 한라비스테온공조)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작업에 착수, 지난해 하반기 자본재조정(리캡, Recapitalization)을 진행한 데 이어 1년만에 추진하는 셈. 다만 전보다 자입 규모는 다소 줄어든 전망.
<https://bit.ly/3f0UE56>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 매각' 인도 규정에 발목 (더그루)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쌍용차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미국 자동차 유통사 HAAH 오토모티브홀딩스와 쌍용차 지분 매각 협상에서 접점을 찾았으나 인도 정부의 규정 위반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음.
<https://bit.ly/3f7pgYf>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